

낙농육우협회에 바란다면



황도정
경기 육우회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월간 낙농육우지가 벌써 창간 16주년을 맞이하게 된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낙농육우협회가 가시밭길을 걸어 오면서도 곳곳하게 성장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것을 축산인의 한사람으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소값 파동과 우루과이라운드, WTO등 정부와의 정책 싸움에서 축산인들의 최첨병 역할을 협회에서 하여주신것, 축산인들이라면 고맙다하지않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협회의 대외적인 긍정적인 평가와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각 지역 회원간의 유대관계와 상호 연대감을 증진시켜 축산인의 힘을 하나로 묶는데는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외국의 축산물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면 내부의 응집된 힘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회원의 한사람으로써 협회에 바라는 몇가지를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웃집 불구경 하듯이하는 대만의 구제역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그에 대한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물론 정부에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들이고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협회에서 첫째 대만을 다녀오는 모든 여행객들의 짐과 사람에게 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모든 축산관련 단체와 연대하여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야 합니다.

둘째 협회에서는 전국의 각 여행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 대만 여행을 자제해달라는 간곡한 뜻을 전달해야 됩니다.

다음은 낙농진흥법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계류되어 잠자고 있는지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어떤 힘의 로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그 까닭을 알수는 없지만 이문제만 해도 축산인들의 힘이 하나로 뭉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축산물 가공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되게 행정쇄신위원회로부터 결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국회에서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처리법이 개정 되어야만 합니다. 이 모두가 협회가 구심점이되어 전국 낙

농육우인 대회를 열어 서명 운동을 벌여 힘을 과시해야만 문제 해결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협회에 바란다면 낙농인들의 힘은 응집력이 큰 반면 육우인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많으면서도 제각각이며 또한 구심점이 없습니다. 이점은 협회에 참석하면서 늘 낙농인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해왔던 점입니다. 앞으로 협회에서 육우인들도 설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국에는 각종 육우단체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육우단체장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낙농인과 육우인이 "소"라는 동물을 생업으로 삼으면서 농촌의 꿈을 펼쳐 나갈수 있다는 장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협회에서는 각 지방을 순회하면서 각종대회(세미나, 토론회 등)을 열어 낙농육우인들이 늘 깨어있겠끔 해야 합니다.

이상 많은것을 협회에 주문했습니다만 이는 협회가 더욱 발전하고 힘있는 낙농육우협회가 될것을 염원하는 마음에서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낙농육우회원 여러분 건투를 빕니다.☺